

도시·농촌청년, 무주서 만났다

군, '제1회 삼락캠프' 진행... 40명 참가 귀농귀촌 주제 공감·소통·교류

귀농·귀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三樂)캠프(이하 삼락캠프)'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락캠프는 전라북도 공모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기 부여, 그리고 시대에 맞는 신(新)농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번 1차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부터 3일간 무풍면 송치마을에서 진행된 제1회 삼락캠프에는 도시청년 20명과 농촌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농촌 어머니와 신(新)창업 모델 소개, 도농청년 토론 청년교류 활성화 방안 등 주제로 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캠프 첫 날 귀농·귀촌 정책을 공유하고 무주읍(청년창업 스타트업)을 견학하며 환경훈 대표가



무주군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三樂)캠프'를 진행했다.

경험한 귀농·창업담을 들었다.

29일에는 옥수수 수확과 포도 봉지 싸우기를 체험하고 래프팅을 즐겼으며 저녁에는 도시와 농촌청년이 1:1매칭 돼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태권도 원에 들러 공연을 관람하고 박물관 등 관련 시설을 돌아보며 '태권도 성지 무주'를 느끼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에도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13개 시·군이 참가했던 이번 홍보전에서 무주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들과 무주에서 생산한 반딧불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빠망TV' 3년 연속 대상

소셜아이어워드서 군·구청 유튜브부문 대상 수상

진안군 공식유튜브 채널인 '빠망TV'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한 '2023 소셜아이어워드'에서 '군·구청 유튜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부문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분야 어워드이다.

진안군은 2021 공공정보 혁신대상, 2022 공공유튜브분야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평가위원들은 단순한 지역 소개 콘텐츠 외에도 진안군의 캐릭터인 '빠망'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빠망이는 빼어난 노래 실력과



가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최초로 올해 4월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예선에 이어 본선 진출에 성공하며 전국민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유튜브는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플랫폼인만큼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힘써 진안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민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 수상 기념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김치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타당성 논의

진안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관내 농협 조합장, 김치제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 후 추진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제기된 김치 5대 원료(배추, 무,

고추, 양파, 마늘)의 전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 여부,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구축되었을 때 원활한 운영과 수익 분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보완해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실태에 맞는 규모, 여건, 사업비 등을 도출하여 추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공모 참여와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및 김치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박차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이 지난 28일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사업별 이행률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을 분석해 추진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환경인사 무주군수를 비롯한 각 국·실·과·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은 총 5개 분야, 15개 정책사업, 96개 세



부사업으로 7월 현재까지 완료(소상공인 안정기금 조성 등 5개) 및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인 사업(무주군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 등 16개) 21개, 공약 이행

률은 21.8%에 이른다.

1분기 대비 완료사업은 1건이 증가했으며 정상추진 중인 사업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등 총 70개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효과성에 주력하고 추진이 안 되거나 일정보다 지연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시 점검과 분석, 보완을 통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장수군이 지난 28일부터 27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실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155개 기초단체에서 364개 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72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을 주제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사업 성과를 △일자리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공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우수 공약 실현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했다.

이 중 장수군은 '꿈찾아 장수로 꿈 키워 세계로!' 사례로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훈식 군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장수군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상은 장수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새만금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추억

진안군, 마이산 트레킹 등 잼버리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진안 홍보관 등서 이색체험도

진안군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술생그린가이드에서 민점을 받은 마이산 트레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군은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진안을 방문하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마이산 트레킹 체험과 홍삼 인욕제를 넣은 족욕체험 등 진안만의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보내 14개 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군은 국가지질공원이자 프랑스 여행안내서인 미술생그린가이드에서 민점을 받은 마이산을 지역연계프로그램

활동장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진안지역 협의회장을 맡은 전춘성 진안군수를 중심으로 스카우트 운동의 확산 및 잼버리 참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준비해 왔다.

특히 김종필 부군수 주재로 3차례 점검회의를 갖고 지역연계프로그램과 홍보관 운영, 농특산물판매장 및 농촌 체험관광마을 운영 등 부서별 운영계획을 점검해 전 세계 대원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7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하루에 160명씩 총 1,280명 가량이 진안 마이산 일대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군은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과 적극 협력해 진안을 방문하는 전 세계 대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을 꼼꼼히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마이산 타코피의 아름다운 지형, 지질과 독특한 문화재 등을 몸소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자 진안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트레킹을 완료하면 마이산트레킹 어워드가 적힌 빠망캐릭터 키링을 증

정하고 마이산 트레킹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진안고원 모자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전북형 민박프로그램인 'Hello 전북'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해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마을여행, 한국의 대표음식 삼겹살구이, 마을의 특징을 살린 연잎스카프 만들기 등을 준비해 진안군의 독특한 문화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잼버리 행사장에는 각국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진안을 알리고 방문객 유입을 위해 진안군 홍보관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상상 너머 환상의 괴원, 진안을 주제로 우수 정책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소셜미디어 이벤트, 체험놀이 공간을 특색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놀이 공간에서는 새싹인삼 심어보기, 마이산 돌담쌓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 안내원과 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진안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야"

진안군의회(의장 김민우) 이명진 의원(나선거구)은 지난 2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녀를 둔 세대 1,350만여 중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46%, 두 자녀는 39%, 세 자녀 이상이 15%를 차지한다"며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행 3자녀로

되어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경우를 언급하며 "인구감소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 진안군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한우지방공사서 현장의정활동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26일,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를 방문해 TMR 사료의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고 유전자 뱅크의 씨수소 사업에 대한 실질적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다.

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장수한우 지방공사가 한우의 사육관리를 위한 우수한 TMR사료의 생산과 장수한우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중요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가 우량한 장수한우 유전자원 개발을 통한 장수한우의 고품질 명품화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공사는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위해 씨수소 생산을 통한 종축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공사의 건설한 운영은 물론 향후 장수군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보답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정복 의장은 "군과 의회, 공사가 장수군 축산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자연휴양림 성수기 본격 운영 시작

장수군이 여름철 성수기 자연휴양림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

장수군은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 및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운영하고 있으며, 70여실의 숙박시설과 아열대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산림욕장, 황토길, 장수치유의 숲 등 휴양공간이 마련돼 있다.

군은 여름철 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성수기 관리인력 증원, 방역 작업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관리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을 휴양림 계곡 곳곳에 배치했으며, 청정 계곡 물을 활용한 와룡자연휴양림 수영장 및 물놀이장은 8월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와룡자연휴양림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료는 어린이 4,000원, 어른 6,000원이며, 장수군민 및 시설이용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 여름 휴가철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계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인근상가, 시장 등 밀집지역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유해업소 및 술집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학교지원단(장수초),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참여해 이뤄졌다.

합동점검단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이성 혼수 목인·방조 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교육지원청 무한상상 AI·SW 캠프

무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교육장 김승기)은 전북SW미래융합사업과 연계해 2023 무한상상 AI·SW 캠프를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여수엑스포 일원에서 개최했다.

전북SW미래융합사업은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5년까지 3년간 총 96,000여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번 캠프는 AI·SW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학생들이 한데 모여 1박 2일동안 집중적으로 웹 개발 코드를 체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엘리스교육그룹과 함께 ChatGP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기초 웹 개발에 필요한 기본 원리 및 코드 구조를 학습했다. 또한 삼성KPMG 박문구 전무의 특강을 통해 메타버스 시나리오 등에 대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